

올해 크게 늘어난 대출의 건전성 관리가 중요

11월 은행대출은 대폭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액은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과도한 대출 증가율은 후행적으로 대손비용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아직은 부정적인 신호는 없지만, 대손비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은행대출 증가율은 2020년 11.8%에서 2021년 4.6%로 하락할 전망

11월 은행대출은 대폭 증가, 가계대출 증가액은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
11월 은행대출 증가액은 20.3조원으로 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업대출 증가액은 6.7조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가계대출은 13.6조원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에는 1) 주택가격 상승 효과, 2) 투자용 대출 확대, 3) 생활자금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은행대출 증가율은 2020년 11.8%에서 2021년 4.6%로 하락할 전망

SK 증권 리서치는 은행 대출증가율이 2020년 11.8%에서 2021년 4.6%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은행들의 가계 신용대출 기준이 강화된데다, COVID 완화로 선제적인 대출수요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은행 증가에 부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대출증가세가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이 은행 펀더멘탈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넘어선 대출 증가율은 부정적일 때가 많음

제조업과는 달리 은행업은 과도한 외형 증가율이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과도하게 외형(주로 대출)을 늘리고 나서 후행적으로 대손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을 1~3% 상회하는 것이 적정하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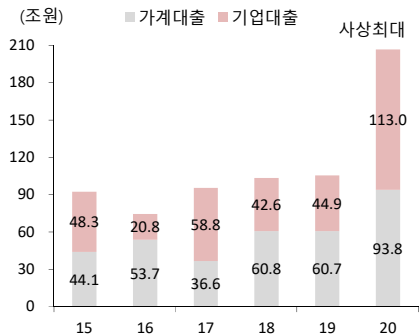
아직은 부정적인 신호는 없지만, 대손비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내 금융시장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은행 대출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 (p.2 그래프 참조)하고 있다. Historical 데이터는 다소 부정적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5%p 이상 상회한 것은 2001~2002년, 2006~2008년 등 두 번 (p.3 그래프 참조) 있었다. 그런데 **과잉 대출이 발생한 1~2년 후에는 모두 대손비용률(대손비용/대출)이 상승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위 **New-Normal 시대에는 과잉 대출로 인한 대손비용 급증 현상이 국내에 나타난 바 없다.** 따라서 아직은 은행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대손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정도로 보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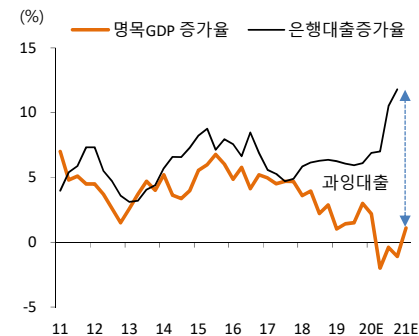
Analyst
구경회
kh.koo@sks.co.kr
02-3773-9083

연도별 은행 대출 증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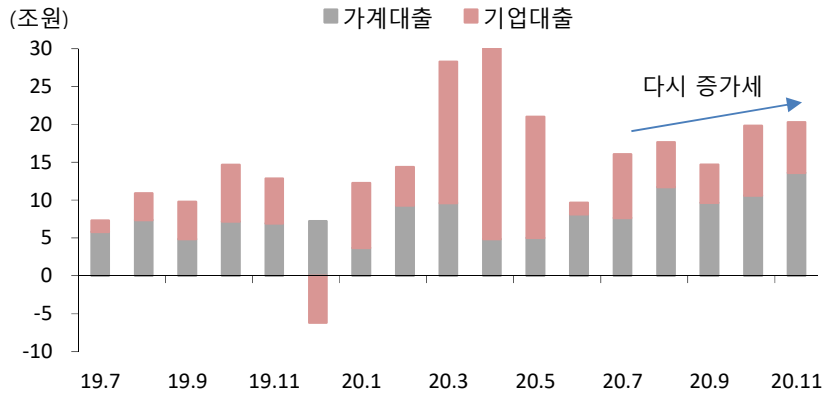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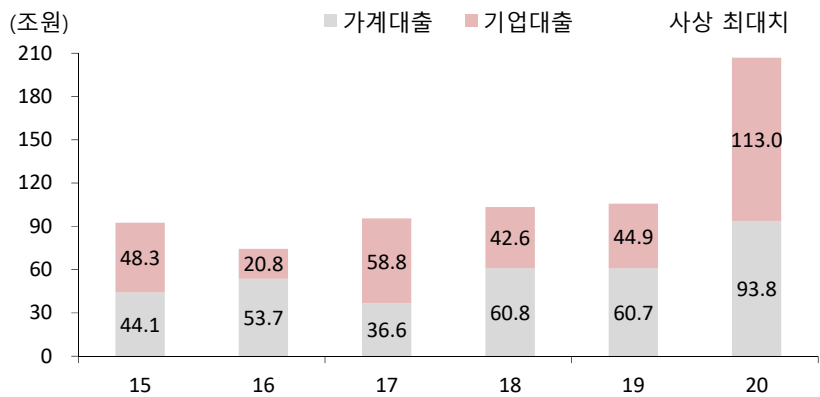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월별 은행 대출 증가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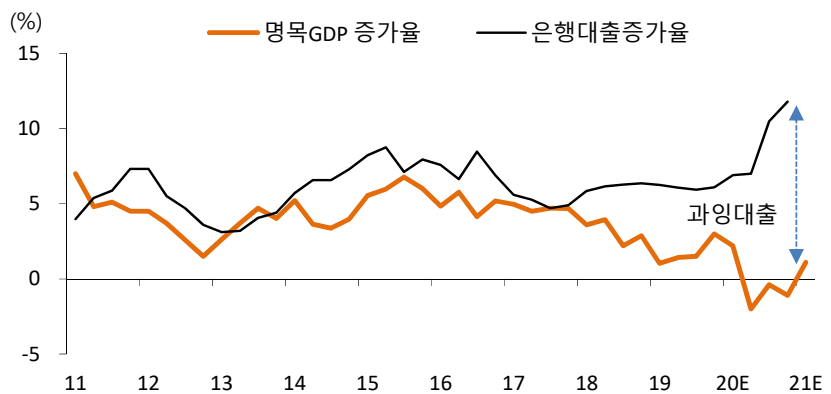
2015년 이후 연도별 은행 대출 증가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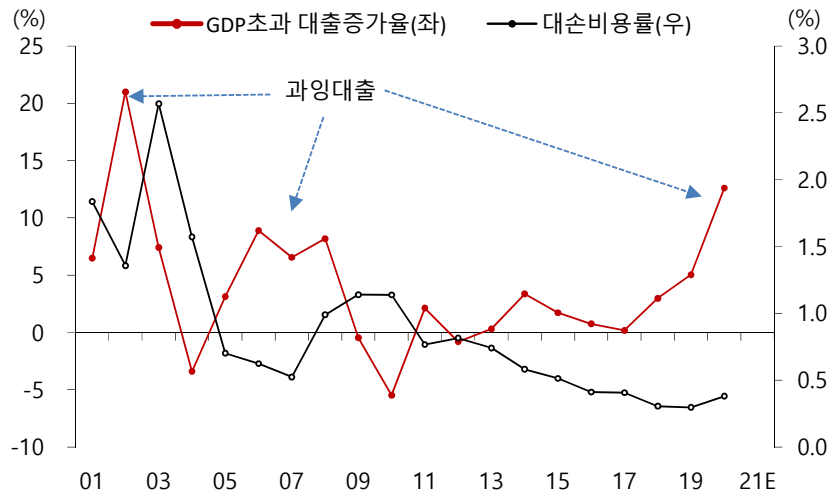
주: 2020년은 11월까지의 누적액

은행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비교 (YoY)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의 대손비용률과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초과 대출증가율 비교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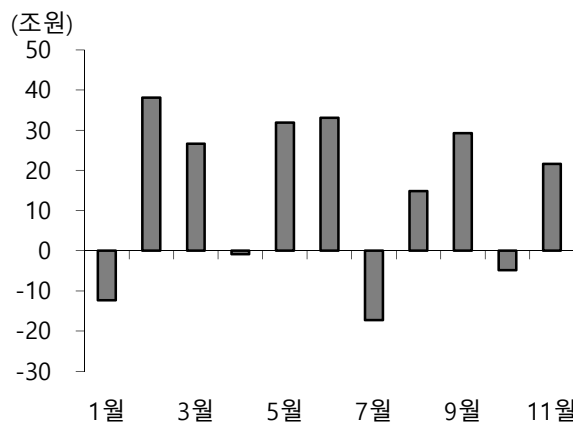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주: GDP 초과대출증가율= 대출증가율-명목 GDP 증가율

11월 은행 수신(예금, 은행채, CD 등)은 전월대비 21.6조원 급증했다. 내용을 보면 증가액의 대부분이 수시입출금식예금(+21.3조원)이었다. 11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수시입출금식예금은 전년동기대비 28.7% 늘어난 반면, 정기예금은 -4.1%를 기록했다. 아직도 국내 금융시장의 부동화(浮動化) 현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금융시장의 부동화로 인해 은행 수신이 단기화되면 은행의 수신금리가 낮아지면서 예대금리차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은행 유동성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금의 부동화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 월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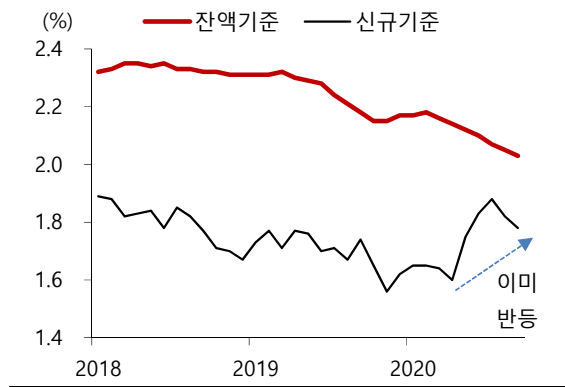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저축성 예금 월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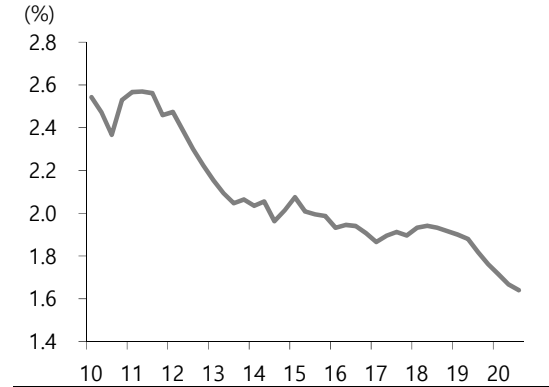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8개 은행주의 NIM (순이자마진) 추이



자료: 각 회사,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구경화)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0년 12월 16일 기준)

매수	87.97%	중립	12.03%	매도	0%
----	--------	----	--------	----	----